

序

族譜는 血統의 系典이요 氏族의 歷史이다 人類와 萬物은 그 根源이 있는지라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成長由來를 追求 考察하여 그를 土臺로 보나나는 앞날을 開拓코저함은 人間의 共通된 精神的인 欲求라 하겠도다 그리하여 記錄으로 남기게 된 것이 크게는 한나라의 國史요 적게는 一家門의 族譜란 名目の 家史일지어다 故로 國史없는 나라와 家史없는 집안이 있을수 없도다。 國史가 있으므로 賢人들의 精神的인 遺産과 文化的인 所産이 保全됨과 同時에 한民族으로서의 緣이 永久不滅할것이오 家史가 있으므로서 祖先을 崇慕하는 人倫道德의 바탕아래 一門中의 血統이 世世繼承될 것이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加速된 物質文明의 高潮로 말미암아 民族的인 歷史意識을 비롯 氏族的인 血統觀念에서 벗어나 차츰 忘本敗倫의 길로 치달리나 憂을까 慨嘆되는 바이다。 故로 先人들의 뜻을 받들어 等閑속에 묻혀 가는 族譜를 살려 沈滯一路에 있는 敬祖思想을 일깨우고 孝悌之心을 培養하고 敦目宗族의 良識을 鼓吹하며 따라서 始祖로부

더自身에 이르기까지의 血統을 올바르게 把握하고 이를 詳細히
밝혀 后孫에게 傳하려 함은 오늘에 사는 우리의 道理와 또한
義務라고 思料되오며 이어 우리의 氏族史는 한번 失傳하면 이
를 다시 밝히지 至難하니 后孫들은 이를 銘心하여 世系를 保全
함에 留念해야 할것이다 이번에 우리門中은 舊譜와 家牒에 依據
하여 族譜를 編纂하기 爲하여 收單을 하고 刊行에 이르러 韓國
族譜圖書館에 依頼한바 高山 崔明喆館長의 積極的인 協助를 얻음
에 있어 참으로 커다란 慶幸이 아닐수 없는지라 따라서 筆者는
猥濫히도 當序를 가름하노니 吾派之族은 承先하고 敦睦하며 裕
后之役에 遺訓을 되새겨 比他標本の 贊揚之家聲을 慶祝하는 바
이다.

壬申(一九九二) 月 日

始祖寧邊公 諱 鋏 十五世孫 龍雲謹叙

廣州金氏璿源世譜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始祖

金闕智

子勢漢

子阿道

子首留

子郁甫

子葛文王

見下

漢明帝永平八年

一諱熱漢伊淦

官阿淦

一諱壽留官伊

一諱郁輔官伊

新羅昔脫解王九

婆娑王二十一年

婆沙王三十二年

伐淦

伐淦

年乙丑三月生

庚子居西干

辛亥年婆珍淦

祇摩王十五年丙寅角干

逸聖王十五年戊子角干

祖

妃摩貞昔氏

夫人

角干康造祖脫解王

郁甫

葛文王

見上

嗣味鄒大王

女休禮夫人

諱仇道追封葛

漢後帝四十年壬午代沾解王而

一諱內禮

文王

漢靈帝元年

立在此二十二年

女世留夫人

新羅伐休王時為

一諱內留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女祇摩王妃

女伐休王妃